

# 교과연구회 · 동아리 919개 선정 지원

### 19개 분야 동아리 890개 · 연구회 29개... 팀당 120만~300만원

전북도교육청은 29일 성교육 수업연구회 공모를 끝으로 올해 지원할 교과연구회 및 동아리 공모를 모두 마감한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교원의 전문적 학습 공동체를 지원하고 함께 배우며 성장하

는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해 해마다 교과연구회와 동아리를 선정해 지원해 오고 있다.

올해에는 지난 3월 5일부터 29일까지 총 19개 분야에서 동아리 890개, 연구회 29개 등 총 919개를 공모했다. 19개

공모분야 가운데 8개 분야는 교사와 학생이 함께 참여하도록 했다.

이번 공모에서 선정된 동아리와 교과연구회는 다음달부터 내년 1월까지 활동하게 되며, 각 팀당 120만~300만원이 지원된다.

각 연구회와 동아리의 활동 결과는 전북교육포털에 탑재돼 일반화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전문적 학습공동체 지원이 교육과정, 수업, 평가에 대한 교원의 전문성 향상과 사제동행의 학교문화 창출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체계적이고도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민 기자

## 전주시, 광견병 예방접종

전주시가 인수공통전염병인 광견병 예방을 위해 반려동물에 대한 예방접종을 한다.

시는 오는 4월 1일부터 30일까지 전주시 37개 지정동물병원에서 동물등록 된 3개월령 이상의 개를 대상으로 광견병 예방접종을 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이 기간 내에 접종하면 평소 20,000원 정도 지불해야하는 광견병 예방접종을 5,000원 정도의 접종수수료만 지불하고 접종할 수 있다.

이번 예방접종 기간 총 1,500마리의 접종을 계획하고 있다.

전주시 관계자는 "악취가 조기 품질될 수 있는 만큼 서둘러 접종을 하고 예방접종 대상은 동물등록제 의무 등록 대상이기도 한 만큼 반드시 등록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광견병 예방접종이 가능한 동물병원은 전주시 홈페이지(www.jonju.go.kr)에서 확인하거나 전주시 친환경농업과(063-281-5073)로 문의하면 된다.

/채규남 기자



초등학생과 함께하는 즐거운 금용이야기 금융감독원 전북지원과 NH농협은행 전북본부는 29일 전북농협 청소년금융교육센터에서 농촌지역 소재 오천초등학교 학생을 초청해 '초등학생과 함께하는 즐거운(fun) 금용이야기 행사'를 개최하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 도교육청, 공유재산 업무담당자 위탁연수

전북도교육청은 29일부터 30일까지 공유재산 업무담당자 연수를 캠프인 재개발원에 위탁하여 실시한다.

이번 연수는 공유재산 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관련 법령해석 및 관례

연구, 실태조사 실무, 무단점유 관리 등 실무 지식 습득을 통해 직무역량을 향상시키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국가자산관리 전문교육기관인 캠프의 실무자들을 비롯한 각 분야의 외부

전문가들로부터 공유재산 관리 사례와 경험을 바탕으로 이론과 실무를 상세히 소개한다.

관계자는 "이번 연수가 지역마다 복잡하고 다양한 사례를 나누며 함께 발전할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효율적 재산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상민 기자

## 서거석 "어르신 등하곶길 도우미 추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서거석 전북도교육감 예비후보는 29일 '손주·손녀 등하곶길 안전 도우미 사업' 공약을 발표했다.



서거석 예비후보는 이날 정책 자료를 통해 "학부모 부담 경감과 어르신의 사회공헌 참여 등을 위해 어르신들이 초등학교 교통안전 도우미로 참여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예비후보는 "교통봉사나 도서 도

우미 등 학교의 각종 프로그램 때문에 학부모의 부담이 심각하다"며 "특히 맞벌이 부부의 경우 이런 부담이 너무 심해 '새학기 증후군'에 시달릴 정도다"고 설명했다.

이어 "학교 참여 프로그램으로 인한 학부모 부담을 덜기 위해 노인일자리센터 등과 연계한 '손주·손녀 등하곶길 안전 도우미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며 "어르신들이 안전 도우미로 나서면 아이들의 안전 확보와 학부모 부담 경감은 물론, 어르신의 사회공헌 등 일석삼조의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민 기자

## 이미영 "학생인권교육센터 확대 운영"

6·13 전국동시지방선거 전북도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이미영 예비후보는 29일 "학생인권교육센터 확대·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미영 예비후보는 이날 자료를 내고 "학교인권의 균형과 조화가 중요하다"며 "학생인권교육센터의 기능과 운영 방식을 확대 개편해 학교현장의 분위기를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이 예비후보는 "학교인권의 3대 축

은 학생인권과 교권, 학부모의 위탁권이다"며 "학생인권교육센터를 전북도육인센터로 확대 개편해 편파적 운영을 개선하고, 학교인권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정착돼 균형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전북학생인권교육센터가 수사기관처럼 과도한 권한을 행사하면서 많은 교사들의 원망을 샀고, 교사의 교육권이 침해되는 부작용이 발생해 기능개편을 촉구하는 여론이 많았다"며 "민원이 발생하면 교사의 기본적 방어권마저 박탈해버리는 경우까지 발생해 심각한 교권추락을 초래하는 일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상민 기자



## 유니버설디자인 체험공간 조성

### 전주시, 자문위원회 개최... 교육·체험시설로 운영

전주시가 시민 누구나 사용하기 편리한 유니버설디자인에 대해 체험하고 배울 수 있는 체험공간을 조성한다.

유니버설디자인은 성별과 연령, 장애유무 등에 상관없이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사용 환경을 만드는 개념으로 모두를 위한 디자인으로 불린다.

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리는 사회통합형 공간인 어울림센터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전주월드컵경기장 내에 유니버설디자인 체험관을 조성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어울림센터 내 공간에는 유니버설 디자인이 적용된 주택체험관과 VR체험관, 제품전시관, 교육장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유니버설디자인 체험관 조성에 나서게 된 것은 최근 전 세계적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 노인, 어린이 등 모두가 차별받지 않고 이용할 수 있는 유니버설디자인이 도입되고 있지만 시민들에게는 다소 생소해 아직 적용사례가 많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체험관 공간 활용 및 배치 등 설계 단계에서부터 다양한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고 긴밀한 협조를 통해 체험관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29일 전주시 도시혁신센터 세미나실에서 유니버설디자인체험관 조성 사업 자문위원회 회의를 가졌다.

주택·아동·노인·장애인 등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는 이날 유니버설디자인 개념과 선진사례를 공유하고 체험관 내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과 구축 관련 세부 실행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최명숙 전북대 교수는 "세계적으로 유니버설디자인은 새롭게 진화하고 있어 현재의 제품이나 시설 등 물리적 환경에 머무르지 않고 미래에는 심리적 한계에도 도전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김광일 한국장애인개발원 과장은 "유니버설디자인을 체험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공간이 바로 유니버설 주거"라며 "현재 대부분은 공공기관 주도로 공공시설물에 이뤄지고 있으나 조만간 아파트와 주택 등 모든 시설물로 확대·적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동관 세이브더칠드런코리아 과장도 "유니버설디자인의 가치는 통일성이 아니라 다양성이며 배려하는 디자인이야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사회를 만드는 원동력"이라고 강조했다.

시는 향후 유니버설디자인 체험관을 전북도내에 확산될 수 있도록 인식개선 교육 및 체험시설로 운영할 방침이다.

전주시 복지환경국 관계자는 "앞으로 유니버설디자인 적용을 통한 환경개선으로 시민 모두가 편리하고 안전하며 활력 넘치는 사람중심의 도시를 구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채규남 기자

# 가장 한국적인 세계도시 전주

## 글로벌 문화관광도시로 우뚝 서겠습니다